MARKET BRIEFING

eastspring investments
A member of Prudential plc (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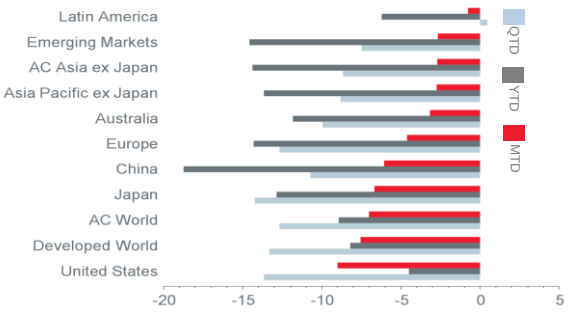
월간 평가: 주식시장에 내리는 산타의 벌

December 2018

전세계 5대 주요 현황

- **주식시장**은 1년 내내 **상당한 등락**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12월에 가장 큰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최악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경험했으며 그 다음 거래일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에 1,000 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월말 무렵에는 거의 모든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으며, 서구 선진국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시장 하락을 촉발시킨 요인으로는 미국 국방부 장관의 사임과 미 연준의 25bp 금리인상 이후 갑작스럽게 불거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거취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 2018년에 주식시장 약세를 이끌었던 주된 배경이 된 **미-중 무역분쟁**은 2019년 첫 90일 동안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양국 지도자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중에 관세인상 관련 휴전에 합의했고, 양측은 향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월 초에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의회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될 것을 우려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마지막 순간에 표결을 철회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엄격한 통행 및 통관절차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한 이견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후 테레사 메이 총리는 보수당내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지만, 의회에서 합의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의회 표결이 1월에 다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유럽에서는 유럽연합과 이탈리아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019년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2.04%로 낮추었습니다. 이 합의로 인해 양측 사이에 추가적인 충돌을 피하고 유럽연합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탈리아에 가해질 제재도 철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국가에서 안정을 찾았지만 다른 국가(프랑스)에서는 시위가 과격해졌습니다. 이번 시위는 당초 유류세 인상 반대, 생활비 증가, 세제개혁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우르지트 파텔 인도중앙은행 총재는 정부와의 갈등설이 몇 달간 지속된 이후 사임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봄철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가 열리는 시점에 양호한 경제 상황을 원하는 정부가 통화완화 정책을 요구했지만, 파텔 총재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월 회의 이후 정부와의 갈등이 완화되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파텔 총재의 사임은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Fig.1. Regional Equity Indices Performance, US$ %



Source: Thomson Reuters Datastream, MSCI

Fig.2. Asia Equity Indices Performance, US$ %

Source: Thomson Reuters Datastream, MSCI (i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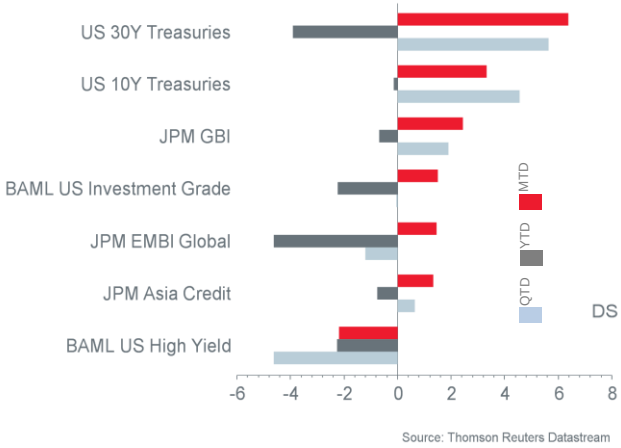
주식시장

- 지난 12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 움직임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가운데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매도세가 심화되면서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들은 약세장(고점대비 20% 하락)에 근접했는데, 미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에 대한 백악관의 의구심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외에도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유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주요 은행 경영진들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매티스 국방장관이 연말에 사임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면서 매도세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판매가 급증하면서 크리스마스 전날의 급락을 만회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하루에 1,000 포인트 이상 올랐지만, 그 이전까지 하락 폭이 상당했습니다.
- 유럽 주식시장도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주식시장이 각각 6%와 4.5% 하락했는데,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하강 우려와 핵심 수출시장인 미국의 성장 둔화 조짐이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영국 주식시장은 다소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파운드화 가치 하락이 달러화 매출 비중이 큰 대형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덕분입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안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연합과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이 통화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Source: Eastspring Investments. Chart data from Thomson Reuters Datastream as at 31 December 2018. For representative indices and acronym details please refer to notes in the append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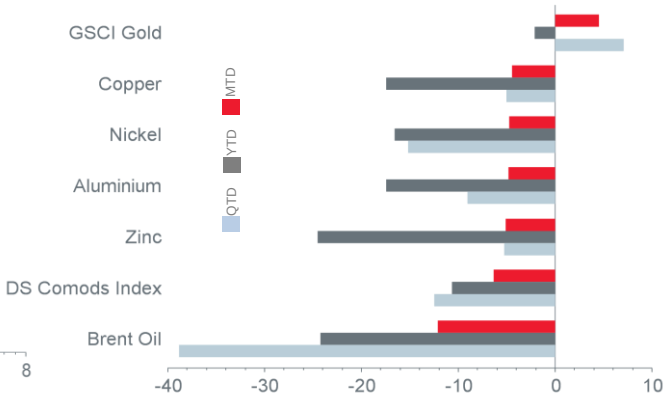
- 선진국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머징마켓은 라틴아메리카 주식시장이 마지막 거래일 무렵 유사한 성적을 보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MSCI 이머징마켓 지수는 2.6% 떨어지면서 7.6% 하락한 선진국 시장지수를 앞섰고, 아시아(일본 제외) 지역은 다른 이머징마켓과 유사한 성적을 보였으며, EMEA 지역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식시장이 다소 양호한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 중국 주식시장은 6% 넘게 떨어졌습니다.
- 미국 주식시장은 12월에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다른 주식시장을 큰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유럽 지수가 14.3% 떨어진 데 반해 MSCI 미국 지수는 4.5% 하락으로 2018년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상대성과 차이는 2017년 12월에 시행된 법인세 인하가 기업이익 증대에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 대륙의 경제의 하강 움직임을 나타내는 미진한 경제지표가 발표되었고,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의 정치적 혼란,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프로그램 종료 또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 이머징마켓의 연간 수익률은 부진을 기록한 유럽과 유사한 14% 하락으로 2018년을 마감했지만, 라틴아메리카는 시장 친화적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4분기에 반등한 브라질 주식시장에 힘입어 6.2% 떨어지는데 그쳤습니다. 과열 양상을 보인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과 한국의 경제성장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양국 주식시장이 아시아 시장의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Fig 3. Bond Indices Performance, USD %



Source: Thomson Reuters Datastream

Fig 4. Commodities Performance in USD (%)



Source: Thomson Reuters Datastream

채권

- 지난 12월 대다수 채권시장 부분에서 수익률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2018년이 마감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한대로 미 연준은 연초 이후 4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2019년 미 연준의 금리인상 횟수 전망치 중간값은 이전의 3회에서 2회로 낮아졌고 2020년에는 한차례 금리인상이 예상됩니다.
-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30bp 떨어지면서 2.68%로 2018년을 마감했습니다. 한때 연초 대비 83bp나 상승했었던 수익률은 2018년 전체적으로 28bp 상승에 그쳤습니다.
- 12월 아시아 국내 금리는 전반적으로 미 국채 수익률 하락 흐름과 유사한 행보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들이 2018년에 통화긴축 정책을 펼친 가운데 대다수 아시아 현지채권 수익률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에서는 국내 채권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상반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 미 달러화 표시 아시아 채권시장의 경우, 미국의 무위험 금리가 낮아지면서 12월에 성과 호조세를 나타냈지만 신용 스프레드가 다소 확대되면서 강세 흐름은 약화되었습니다. 스프레드 확대 양상이 2018년 내내 아시아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투자등급 미만 아시아 채권의 스프레드가 투자등급 아시아 채권에 비해 크게 벌어지면서 연초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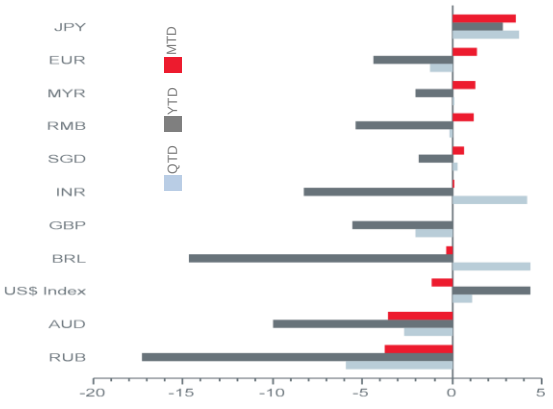
- 유가는 12월에 10% 넘게 떨어졌는데, 하락 대부분이 1주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미국이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에 대해 제재 유예를 적용했고,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로 향후 수요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유가는 4분기에만 40%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이 2018년 세계 최대 산유국에 올랐고, OPEC 중심의 산유국들이 의미 있는 산유량 감축에 나서지 않았으며, 공급 증대 및 수요 감소 조짐이 나타나면서 2018년 한 해 동안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25%와 20% 떨어졌습니다.
- 다른 원자재 상품 중에서 금은 미 달러화와 달리 안전자산 지위를 되찾으면서 12월에 상당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2% 하락한 수준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연수익률이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금속들의 가격은 내림세를 기록했는데, 알루미늄은 러시아의 Rusal에 대한 제재가 종료되면서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여타 금속들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 연준이 2019년에도 금리인상을 이어가겠다고 시사하면서 대다수 금속 가격이 연간 기준으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백금은 지속적인 부족 양상으로 인해 19% 오르면서 연간 기준으로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 연성 원자재 중에서는 코코아가 아이보리코스트의 수확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연수익률이 가장 높았으며, 밀 가격도 러시아 수출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미국산 밀에 대한 수요 증대 예상에 올랐습니다.

Source: Eastspring Investments. Chart data from Thomson Reuters Datastream as at 31 December 2018. For representative indices and acronym details please refer to notes in the appendix.

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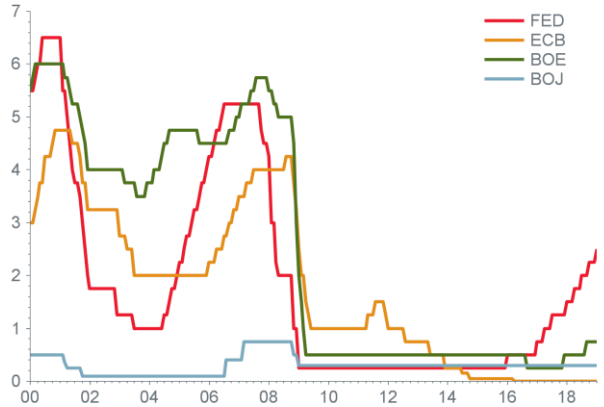
- 통화시장 측면에서 12월은 조용한 시기였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은 2018년 전체 상황에 맞춰졌습니다. 2018년은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기간으로 기록되겠지만, 연초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미 달러화 약세를 점쳤습니다. 예상대로 미 달러화는 약세로 출발했지만 4월에 접어들면서 미 연준이 시장 전망보다 더 빠른 금리인상 속도를 시사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이 통화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미-중 무역전쟁 심화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정학적 우려가 1년 내내 미 달러화와 엔화를 지지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 주요 통화 중에서 일본 엔화만이 유일하게 미 달러화보다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고, 호주 달러화와 스웨덴 크로나화와 같이 높은 베타 특성을 지닌 통화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이슈 덕분에 13% 범위 내에서 거래되었으며 유로화 가치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 이머징마켓 통화는 2018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부채규모가 큰 국가들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특히 터키와 아르헨티나의 통화 가치는 각각 28%와 50% 하락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선택한 반면, 터키는 어려움을 겪으며 겨우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러시아와 브라질 또한 힘겨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유가가 연중 상승세를 보였지만 루블화 가치는 17% 넘게 떨어졌고, 헤알화 또한 국내 경제문제와 대선 관련 우려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대선에서 시장 친화적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승리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은 완화되었습니다.
- 아시아에서는 모든 관심이 중국 위안화에 집중되었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미 달러당 7.00 위안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미 달러당 6.30/6.40 위안 수준에서 거래되었지만, 6월에서 10월 사이에 거의 10% 가량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부채감축 정책에 대한 우려가 미-중 무역분쟁과 맞물리면서 위안화가 매도세에 취약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인도에서는 루피화 환율이 역대 최고인 미 달러당 74 루피 수준에 도달했고,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환율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머징마켓 통화의 전염효과가 심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쌍둥이 적자를 기록 중인 이머징마켓 국가(인도네시아 등) 상황을 터키와 아르헨티나 사태와 유사하게 받아들인 탓에 해당 통화에 매도세가 강해졌습니다.

Fig 5. Currencies Performance versus USD (%)



Source: Thomson Reuters Datastream

Fig 6. Central Banks Interest Rat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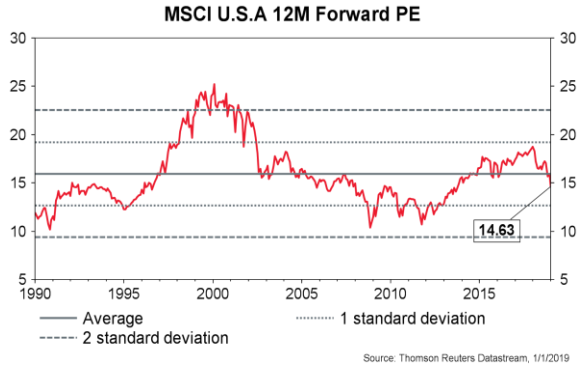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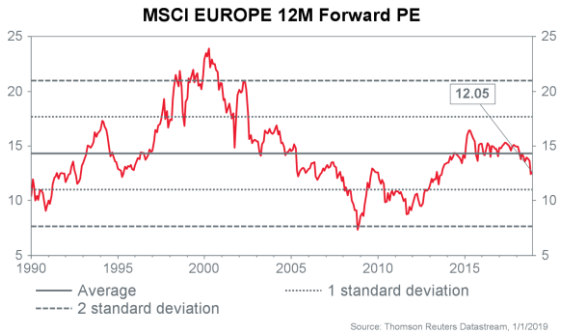
Source: Thomson Reuters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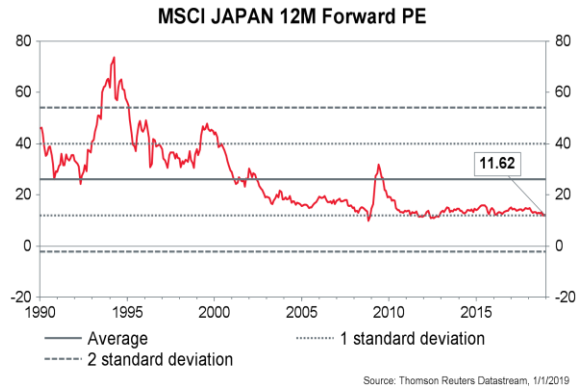
경제

- **미국** ISM 지표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양호한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근원 인플레이션은 연료가격 하락에 힘입어 전년 대비 2.2% 수준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유틸리티 생산을 촉진시킨 한파 덕분에 산업생산이 0.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미국 경제지표들은 처음으로 둔화 조짐을 나타냈습니다. 비농업부문 일자리가 예상을 하회하며 155,000개 늘어나는데 그쳤고, 실업률은 3.7%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2.25~2.50%로 25bp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여전히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선호하고 있다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금리인상에 대한 견해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의 단기금융시장에서는 2019년 금리인상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낮추고 2020년 금리인하 가능성을 50% 이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행**은 매매하는 국채 수익률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경제 과열 양상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지지만, 이번 경우에는 은행 수익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예상한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말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가 2018년에 거의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 **유럽중앙은행**은 2조 6천억 유로 규모의 채권매수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그렇지만 예기치 않은 성장둔화가 나타나고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경우 유럽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양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기준금리 또한 동결했지만 성장률 목표를 1.5%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3분기 이탈리아 경제는 전분기 대비 0.1%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약세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설문조사에 따라 이탈리아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소매판매는 8.1% 증가에 그치면서 지난 10월 8.6%에 비해 약화되었는데,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성장속도가 느린 수준입니다.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10% 줄어들었습니다. 산업생산은 시장 예상을 밑돌며 3년 만에 가장 느린 5.4% 증가에 그쳤습니다.
- 다른 지역에서는 호주의 분기 GDP 성장률이 2016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0.3%에 그쳤습니다. 미국 이외에도 태국, 멕시코, 스웨덴에서 금리를 올렸고, 일본, 인도, 캐나다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영란은행 또한 금리를 동결했으나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기업투자가 최근 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Source: Eastspring Investments. Chart data from Thomson Reuters Datastream as at 31 December 2018. For representative indices and acronym details please refer to notes in the append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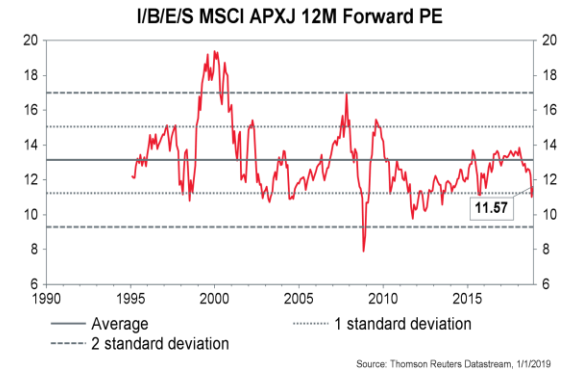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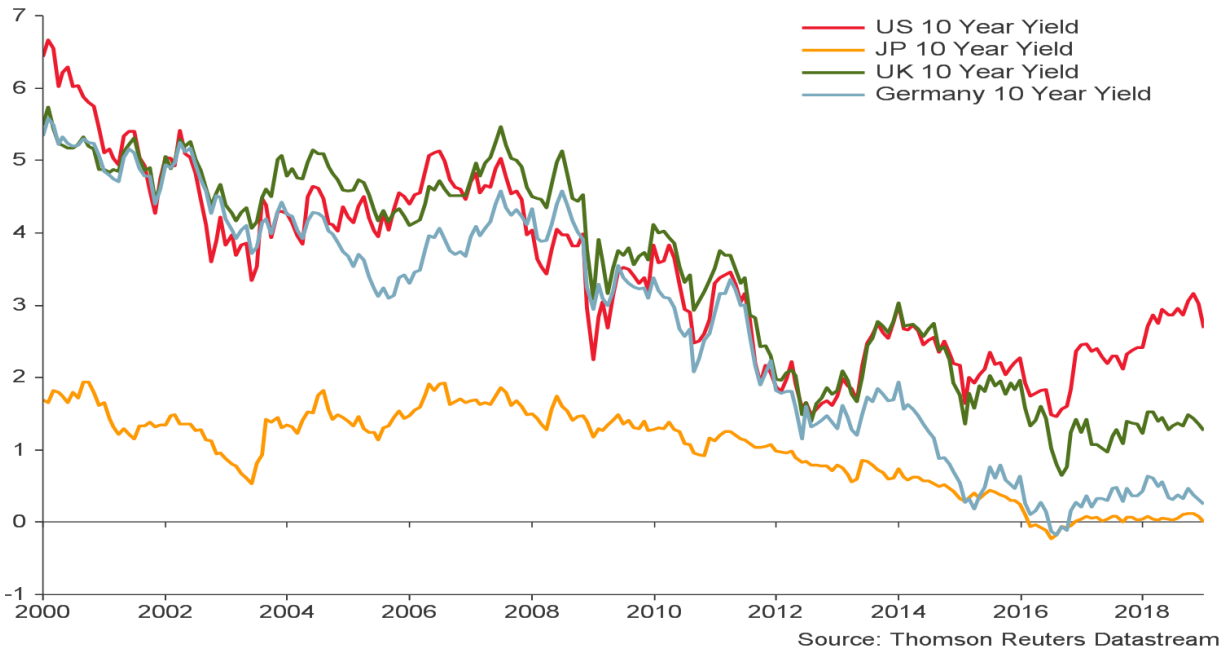


Fig 8. Key Bond Yields (%)



Source: Eastspring Investments. Chart data from Thomson Reuters Datastream as at 31 December 2018. For representative indices and acronym details please refer to notes in the appendix.

MSCI monthly, quarterly and year-to-date data

	Dec	2018	Q4	Nov	Q3	Q2	Q1	2017
World	-7.0	-8.9	-12.7	1.5	4.4	0.7	-0.8	24.6
Developed World	-7.6	-8.2	-13.3	1.2	5.1	1.9	-1.2	23.1
United States	-9.0	-4.5	-13.7	1.9	7.5	3.5	-0.6	21.9
Europe	-4.6	-14.3	-12.7	-0.9	0.8	-0.9	-1.9	26.2
Japan	-6.7	-12.6	-14.2	0.4	3.8	-2.8	1.0	24.4
Emerging Markets	-2.6	-14.2	-7.4	4.1	-0.9	-7.9	1.5	37.8
Asia Pac Ex Japan	-2.7	-13.7	-8.8	4.5	-1.3	-3.5	-0.6	37.3
Asia Ex Japan	-2.7	-14.1	-8.6	5.3	-1.5	-5.3	0.7	42.1
Latin America	-0.7	-6.2	0.5	-2.2	4.9	-17.7	8.1	24.2
Brazil	-1.7	-0.2	13.6	-2.0	6.2	-26.4	12.5	24.5
EMEA	-1.6	-15.6	-4.0	4.5	-1.4	-10.0	-0.9	25.2
	Dec	**2018**	**Q4**	**Nov**	**Q3**	**Q2**	**Q1**	**2017**
Australia	-3.2	-11.8	-10.0	0.6	-0.9	5.3	-6.1	20.2
New Zealand	-1.8	-3.5	-6.5	3.8	2.6	5.8	-4.9	12.7
Hong Kong	0.0	-7.8	-4.5	7.4	-0.9	-1.2	-1.4	36.2
China	-6.1	-18.7	-10.7	7.3	-7.4	-3.4	1.8	54.3
Korea	-1.5	-20.5	-12.8	3.4	0.7	-9.1	-0.4	47.8
Taiwan	-1.4	-8.2	-13.7	-0.7	7.2	-6.1	5.7	28.5
Thailand	-2.9	-5.3	-10.2	-0.3	13.7	-14.9	9.0	34.9
Malaysia	1.6	-6.0	-5.8	-1.0	3.8	-11.4	8.5	25.1
Singapore	-0.9	-9.4	-6.7	3.0	2.2	-7.5	2.8	35.6
Indonesia	0.9	-8.7	9.8	12.3	2.0	-12.2	-7.1	24.8
India	-0.1	-7.3	2.5	10.4	-2.3	-0.6	-7.0	38.8
Philippines	1.5	-16.1	5.4	4.9	1.1	-11.1	-11.4	25.2
	Dec	**2018**	**Q4**	**Nov**	**Q3**	**Q2**	**Q1**	**2017**
Mexico	3.3	-15.3	-18.7	-4.8	7.0	-3.5	0.9	16.3
Chile	-3.5	-18.9	-8.6	3.3	-1.9	-11.0	1.6	43.6
Hungary	-0.1	-6.1	5.9	8.8	4.7	-14.4	-1.0	39.9
Poland	0.2	-12.5	-2.9	7.6	11.1	-11.6	-8.2	55.3
Czech Republic	-3.0	-2.2	-8.7	2.1	4.0	-3.2	6.4	38.9
Russia	-3.4	0.2	-8.8	-1.2	6.6	-5.8	9.4	6.1
Turkey	-5.1	-41.1	4.8	13.1	-20.5	-25.7	-4.8	39.1
South Africa	-0.7	-24.3	-3.7	8.8	-7.2	-11.8	-4.0	36.8
Qatar	-1.0	29.8	8.4	2.0	12.8	3.5	2.5	-11.5
Saudi Arabia	2.1	19.2	-0.7	-3.2	-2.9	9.3	13.1	7.6
United Kingdom	-3.8	-14.1	-11.8	-1.7	-1.6	3.0	-3.9	22.4
Germany	-5.8	-21.6	-15.5	-2.0	-0.6	-3.4	-3.5	28.5
France	-4.5	-11.9	-15.0	-1.8	2.9	0.3	0.4	29.9
Netherlands	-6.1	-12.8	-11.0	2.8	-1.4	-1.6	1.0	32.7
Italy	-3.4	-17.0	-11.8	0.8	-4.3	-6.8	5.4	29.6
Spain	-3.7	-15.7	-8.5	1.9	-2.3	-4.1	-1.6	27.7
Greece	-5.3	-36.7	-15.9	-3.3	-17.6	-2.0	-6.7	29.1

Source: Thomson-Reuters Datastream, MSCI. All data Total Returns, in US dollar terms, as of 31 December 2018

KEY TERMS	
CA	Current Account
CBR	Central Bank of Russia
COPOM	Central Bank of Brazil
CPI	Consumer Price Index
DM	Developed Markets
ECI	Employment Cost Index
EM	Emerging Markets
EM Currencies	MSCI Emerging Markets Currency Index
EM Equities	MSCI Emerging Markets Index
EM Local Currency Bonds	JP Morgan Emerging Local Currency Bond Index
EM USD Bonds	JP Morgan Emerging Market Bond Index
EMU	European Monetary Union
EU	European Union
Fed	The Federal Reserve Board of the United States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GDP	Gross Domestic Product
Global Developed Equities	MSCI Developed Markets Index
Global Equities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Global Government Bonds	Citigroup World Government Bond Index
IP	Industrial Production
M2	M2 Money
mom	Month on month
PBoC	Peoples Bank of China
qoq	Quarter on quarter
Repo	Repossession
SDRs	Special Drawing Rights
SELIC	Sistema Especial de Liquidação e CU.S.todia (SELIC) (Special Clearance and Escrow System)
Tankan	Japan Large Business Sentiment Survey
TSF	Total Social Financing
UK	United Kingdom
yoy	Year on year

REPRESENTATIVE INDICIES	
Aluminum	S&P GSCI Aluminum Index
Asia Local Bond (ALBI)	HSBC Asia Local Bond Index
Brent Oil	Cash settlement price for the InterContinental Exchange (ICE) Brent Future based on ICE Futures Brent index
Commodities	Datastream Commodities Index
Copper	S&P GSCI Copper Index
EMU 10 Year	Datastream EMU 10 Year
Global Emerging Bond	JPM Global Emerging Bond Index
Gold	S&P GSCI Gold Index
Japan 10 Year	Datastream Japan 10 Year
JACI	JP Morgan Asia Credit Index
MSCI Dev World	MSCI Developed Markets Index
MSCI EM	MSCI Emerging Markets Index
MSCI Europe	MSCI Europe Index
MSCI Japan	MSCI Japan Index
MSCI Latam	MSCI Latin America Index
MSCI Russia	MSCI Russia Index
MSCI U.S.	MSCI U.S. Index
MSCI World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Steel (HRC)	TSI Hot Rolled Coil Index
UK 10 Year	Datastream UK 10 Year
U.S. 10 Year Treasuries	Datastream U.S. 10 Year Treasuries
U.S. 30 Year Treasuries	Datastream U.S. 30 Year Treasuries
U.S. High Yield	BAML U.S. High Yield Constrained II
U.S. Investment Grade	BAML Corporate Master
DXY	U.S. Dollar Index
Zinc	S&P GSCI Zinc Index

Source: Eastspring Investments

· 본 자료는 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 (아시아운용본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 계열사에서 공유하는 자료입니다.

·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며,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 전망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 시장 예측에 대한 자료는 단지 참고자료로서 작성되었고 당사는 예측에 따른 고객의 행위에 대한 직, 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원문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번역과정에서 오류 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은 영국 프루덴셜 그룹의 계열사로, 미국에 본사를 둔 푸르덴셜 파이낸셜과 아무런 제휴관계가 없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에 대한 확실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사전 공지 없이 변동 가능 합니다.